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18일 오전 제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린 광주광역시 북구 운동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 공약대로 개헌안에 '5·18 정신' 명시

민주주의 역사·정통성 정립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5·18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을 핵심으로 하는 헌법개정안 전문을 발표하며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와 정통성을 정립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을 통해 밝힌 대통령 개헌안에서 "4·19혁명과 함께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명시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항쟁과 1987년 6·10 민주화 항쟁을

문 "역사적 평가로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건이 (1979년) 6·10 항쟁일텐데 그 정도의 평가가 있어야 헌법에 들어갈 수 있다"면서 "현재 진행형이란 의미는 촛불 정신이 지금도 우리 사회 바탕에 있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도 그 정신을 구현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다르지 않다"고 해석했다.

한편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명시에 문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5·18민주화운동 가치를 강조하는 행보를 보여왔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일주일여 만인 지난해 5월 18일 광주 북구 운동

지자체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촛불민심' 계승 천명했으나 정치적 상황 고려 포함 안해

문 대통령은 1960년 4·19 혁명 수준으로 명시하겠다는 것은 민주화운동 과정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

문 대통령이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연정선인 촛불시민혁명 속에서 새 정부가 출범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촛불정신은 문재인 정부 중요한 국정철학으로 자리매김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촛불시민혁명이 현재 진행 중이란 이유로 개헌안 전문에 포함하지 않았다. 역사적 평가를 받기에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을 끝내지 않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

조국 민정수석은 대통령 개헌안 브리핑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

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현지 대통령 처음으로 9년만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 대통령의 5·18 기념식 참석은 지난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참석 이후 4년 만이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노래로 1997년부터 매년 기념식에서 제창됐지만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부터 공연단 합창으로 대체됐다. 광주시민들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요구했지만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도 불허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5·18 민주화운동 관련 공약했던 것들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뉴시스

정읍 생태마을에서 희망 찾는다

도민과 함께하는 희망대화 송 지사, 송죽마을 등 방문 생태관광 발전방안 논의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2018년 도민과 함께하는 희망대화를 위해 20일 정읍 시를 찾았다.

이날 희망대화는 김용만 정읍시장권 한대행, 이학수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장, 유진섭 정읍시 의장,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장을 비롯한 방문지 주민들과 함께했다.

먼저, 국가생태관광지로 지정된 정읍 월영습지와 솔티숲의 생태마을인 송죽마을을 찾아 솔티숲과 마을공동체로 생산하는 모시공장을 시찰하고 마을 주민들과 생태마을 발전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지역은 2015년부터 전북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태관광지 육성사업 대상지역으로 우수한 생태자원을 기반으로 생태프로그램 발굴, 주민역량 강화교육을 집중 추진하여 금년 1월 국가생태관광 지역으로 지정됐다.



20일 도민과 함께하는 희망대화로 정읍을 방문한 송하진 도지사가 국가생태관광지로 지정된 월영습지와 솔티숲에서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월영습지와 솔티숲이 국가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해 주신 마을 주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잘 보존된 자연 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함께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송 지사는 토탈관광과 연계하

여 내장산의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내장산 국민여가캠핑장을 찾아 시설을 시찰하고 시설 관계자 및 주민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김진성 기자

전북 혁신성장 중·장기 미래발전 구상

미래비전 대토론회... 특화발전·주력산업 고도화 등 제시

"전북은 새만금이라는 입지조건과 자동차·부품 연구기반을 바탕으로 전기자동차 중심의 자율주행기반 자동차 산업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

도민과 함께하는 전북 혁신성장 미래비전 2050 대토론회에서 산업연구원 이항구 박사는 지역산업 체질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북도 중장기적인 미래 발전상을 모색하고 지역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도민과 함께하는 전북 혁신성장 미래비전 2050 대토론회'가 20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송하진 도지사와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전북도 출연기관장, 시군 부단체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농업, 콘텐츠, 섬유, 자동차 분야 기업 대표, 도내 대학생 등 도민 13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Post 새만금을 대비한 전라북도 중장기 미래발전 전략, 그리고 전북 산업·경제 체질개선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논의가 이어졌다.

전북연구원 이강진 연구실장은 첫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서 '전북 혁신성장 미래비전 2050'에 대해 발표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전북테크노파크 현대인 정책기획단장은 '전북 지역산업 결어은 15년, 나아갈 30년!'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SWOT 분석을 통해 ①농생명, 관광 등 전북 강점을 활용한 특화발전 ②자동차, 섬유 등 주력산업 고도화 ③4차산업혁명의 신기술 기반 확보로 미래 신산업 선점 ④지역개발 선도를 위한 글로벌 공공인프라 구축 등 4대 전략을 도출하고 이를 뒷받침할 18개 핵심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18개 핵심프로젝트에는 ▲스마트 농축수산 혁신 밸리 조성 ▲식품클러스터 글로벌 거점화 ▲지능형 이동체 거점 클러스터 조성 ▲바이오 메디-테크 글로벌 거점단지 조성 ▲산업용 섬유 기술혁신 생태계 육성 ▲새천년 전라문화 관광벨트 조성 등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통해 새만금~혁신도시~동부권을 지역의 신성장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전북연구원은 핵심프로젝트를 통해 66조를 투입하여 생산유발 75조, 고용 창출 57만개, 부가가치 27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도, 공무원 선거준비 실천 결의

전북도는 20일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윤선수법을 통한 선거법 준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의 선거준비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번 결의대회는 직원 대표가 공무원의 선거준비 결의문을 낭독하고 공무원의 선거관련행위 금지 안내 및 공명선거 선거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짐했다.

참석한 공무원들은 이번 선거를 공명선거로 이끌기 위해 선거관련 의혹 사전에 차단하고 엄정한 선거준비와 철저한 선거 규정 준수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결의문에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 및 선거 운동 기획 참여 금지 ▲인터넷,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공직선거법 준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진성 기자

본사 인사

▲최수호
임:기자
명:편집국경제부

(3월 21일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